

코로나 장기화에...청년들 “입대 앞당기자”

광주·전남 을 4월~내년 3월 1만8000여명 지원...지나해보다 20% 증가 학업 전념 어렵고 알바 자리도 없어...군 훈련 축소·연기도 영향 미친듯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사회 모든 분야의 흐름이 막히자 군대로 향하는 광주·전남 청년들이 늘고 있다. 코로나 여파로 학업에 전념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제난에 아르바이트마저 구하기 어렵고, 해외 유학이나 여행 등 다양한 활동이 차단되면서 군 입대를 선택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군대에서도 모든 업무에 앞서 코로나 방역을 중시하고 코로나 감염 발생이 심할 경우 훈련도 자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막연한 두려움으로 입대를 미루던 젊은이들까지 지원에 가세하고 있다는 것이다.

27일 광주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입영을 지원한(올해 4월~내년 3월 입영) 광주·전남 청년들은 육군 1만 1497명, 해군·해병 2905명, 공군 3652명 등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육군(9269명)은 24.0%, 해군·해병(2290명) 26.8%, 공군(2912명) 25.4%로 각각 증가했다. 육군은 2000여명, 해군·해병·공군은 700여명이 늘어난 수치다.

광주·전남에서 올해 4~12월 입영을 위해 지난 1~9월 모집을 마감한 육군 지원병(3919명 선발 7322명 접수)은 1.86대1, 해군·해병(1086명 선발 1922명 지원)은 1.76대1, 공군(1048명 선발 1978명 지원)은 1.8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내년 1~3월 입영을 하기 위해 올해 10~12월 접수한 광주·전남 청년들은 육군 4175명, 해군·해병 983명, 공군 1674명이다. 12월 지원자 선발은 내년 1월 26일에 발표한다.

이같은 입영 지원자들의 증가는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 학교 생활과 아르바이트 등에 상당한 제약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커졌기 때문이라는 게 병무청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더욱이 대학 새내기들 사이에서는 멋진 캠퍼스 생활을 기대 했지만 코로나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고, 새로운 학교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서 ‘이럴 땐 차라리 군대라도 빨리 다녀오

자’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또 코로나로 해외 여행이나 아학연수, 워킹홀리데이 같이 외국으로 갈 수 있는 상황조차 막혀 청년들이 군대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전남대 게시판에는 ‘대학생활도 누릴 수 없고, 자격증 시험도 없어 있는데 차라리 군대나 빨리 다녀오자’, ‘20학번들

은 학교 생활 한번도 못해보니 차라리 바로 군대 가는 게 낫다. 21학번도 차라리 지금 가야 한다’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청년들의 주요 경제활동인 아르바이트 자리가 급격히 줄어든 것 또한 군 입대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대학생 정모(21)씨도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주변 친구들도 이왕 갔다 올 군대 빨리 가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군 훈련이 줄어든 것 또한 입대를 결정하는 청년들이 늘어난 또 다른 이유라는 분

석도 있다. 지난달 국방부가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신병교육대 훈련이 입소 후 2주간은 주둔지에서만 실시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각 부대에서도 야외훈련은 장성급 지휘관 판단 아래 필수 훈련만 실시하게 됐다. 지금 훈련이 간소화될 때 빨리 다녀오는 게 ‘이득’이라는 판단에 지원하는 청년들도 늘고 있다.

군 입대를 계획 중인 대학생 김모 씨(24)도 “군대에 있는 친구가 대규모 훈련들이 코로나로 취소되고, 신교대 훈련도 간소화됐다고 했다”면서 “이왕갈 군대, 편할 때 가자는 친구들이 늘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무등산서 해맞이 안됩니다...1월1일~3일 입산 통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으로 해맞이 행사 등을 전면 금지함에 따라, 27일 광주 동구 무등산국립공원 입구에 ‘1월 1일~3일 오전 7시 이전 입산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지자체 정부혁신 평가 동구 ‘3년 연속’ 최고기관

광주시 동구가 3년 연속 정부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7일 동구에 따르면 동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0 지방자치단체 정부혁신평가’에서 최고 우수기관으로 뽑혔다.

전국 243개 광역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는 ▲기관 자율혁신 ▲포용적 행정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 ▲혁신 확산 및 국민체감 등 5개 항목, 12개 지표를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됐다.

동구는 정부혁신을 위해 ‘주민이 행복한 동구 실현’이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40개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집중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공정하고 내실 있는 공약평가단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주민공유공간인 마을사랑채, 소통경로당 등을 조성해 주민과의 소통 행정에 내실을 기한 게 적중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청년생태도시 조성, 자원순환 초록마을, 코로나 시대에도 당당히 맞서는 치매예방 행정 등도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는 게 동구의 분석이다.

입택 동구정장은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이 많았으나 주민과의 소통행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만큼 앞으로도 소통행정 혁신으로 지역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동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북구문화센터’ 개관 문화·교육 복합시설

광주시 북구에 지역민들의 문화적 삶의 향상을 위한 북구문화센터가 문을 연다.

27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 24일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마중물이 될 북구문화센터를 개관했다.

양산동에 위치한 센터(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는 공연장 377석, 도서관 180석, 오픈갤러리 등 문화·예술·교육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로 1층은 무대·관람석, 연습실 2층은 휴게실·오픈갤러리, 어린이 도서관 3층은 종합자료실·세미나실·창고 등으로 조성됐다.

센터와 함께 문을 여는 양산도서관은 성인도서 1만 1000권과 어린이 도서 1만권 등 총 2만 1000권의 장서를 확보하고 종합자료실과 어린이실을 별도로 구분해,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센터 공연장은 전문적인 공연이 가능한 무대 장치와 음향기기를 갖추고 있어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인 북구정장은 “앞으로 주민과 문화예술인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 지역소멸·학교 통폐합’ 심각한 위기”

전남교육청 ‘미래 교육 방향’ 설문

전남지역 교직원·학부모·학생들은 ‘지역소멸’ ‘학교 통폐합’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교육청이 최근 전남교육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교직원들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심화’(3.85, 이하 5점 척도)와 ‘학생수 감소로 인한 농어촌·원도심과 소규모학교 통·폐합 위기’(3.83)를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극복 과제로 ‘미래학교 육성’·‘초·중고 연계 교육과정’ 등 제시

학부모들은 ‘학생수 감소로 인한 농어촌·원도심과 소규모학교 통·폐합 위기’(3.28)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심화’(3.16)를 가장 크게 우려했다.

전남교육의 위기상황을 극복할 해결 과제로 교직원들은 ‘학생수 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학교 육성’(67.4%)을 꼽았다.

학부모들은 ‘학생의 안정적 성장발달을 위한 초·

중·고 연계 교육과정 운영’(54.0%), ‘최첨단 교육시설 등 미래교육 환경 조성’(49.0%), ‘지속가능한 미래학교 육성’(44.5%)을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로 제시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위기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교직원과 학부모간 다소 차이를 보였다.

교직원들은 ‘작은학교 유지정책 지속’(36.9%)에 무게를 둔 반면, 학부모들은 ‘학교급간 교육과정과

교육시설 등 통합연계 운영’(48.0%) 안을 선호했다. 이는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폐교나 통합되는 대신 다른 학교급의 학생들과 함께하더라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학교에 다니기를 바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도 교육청은 설명했다.

이같은 지역 교육의 위기 해결을 위해 도 교육청은 지난달 17일 대토론회와 이달 17일 공청회를 차례로 열어, (가칭)미래형 통합운영학교 추진을 위한 구상과 계획을 밝히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도 교육청 내 한시 조직으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이 발족해 그동안 준비했던 사업의 방향과 내용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남교육청 정책기획과와 전남교육정책연구소가 주관해 지난 11월6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사랑과 감사의 66년
1954~2020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2021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www.kwangshin.ac.kr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학 과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인 문 사 회	신 학 과		15
	한국어교육학과		2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평생교육상담학 전공)		3
사 범	유아교육과		3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6
총 계			29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상담심리지도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 7(목) ~ 11(월)
- 전 형 일: 2021. 1. 18(월)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2021. 1. 7(목) ~ 11(월)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학지로 36